

광주·전남 대학 상당수 2020년 폐교 위기

“정원의 44% 못 채운다”

이희신 서강정보대 교수 논문

오는 2020년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중 상당 수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희신 서강정보대학(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서강학원 장학 30주년을 기념해 22일 서강정보대 문화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지역발전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발표한 ‘한국 대학교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국 고교 졸업자는 2006년 61만1천 명에서 2010년 67만9천 명으로 6만8천 명(11.1%) 증가하지만, 이후 출산을 저하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줄어 2020년 50만8천 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0년의 74.8% 수준이다.

광주·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06년 4만944명인 고교 졸업자가 2010년 4만4천954명으로 4천10명(9.8%) 증가했다가 2020년 3만3천657명으로 줄어 2010년의 74.9%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006년 4만4천444명(정원의 7.5%)에서 2010년 3만8천41명(6.4%)으로 소폭 줄었다

■광주·전남 대학 미충원 인원 추이

	고교졸업자	진학 예상 인원	정원		계	미충원 인원		
			4년제대학	전문대학		4년제대학	전문대학	계
2005년	41,760	34,285	27,785	25,372	53,157	2,294(8.3%)	1,772(7%)	4,066(7.6%)
2006년	40,944	33,615	25,905	23,512	49,417	1,603(6.2%)	2,531(10.8%)	4,134(8.4%)
2020년	33,657	27,632	25,905	23,512	49,417	8,453(32.6%)	13,332(56.7%)	21,785(44.1%)

가 2020년 17만8천432명(30%)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예상 미충원율은 각각 18.9%와 45.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전남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006년 4천134명(정원의 8.4%)에서 2020년 2만1천785명(44.1%)로 5배 이상 늘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미충원율도 각각 32.6%와 5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이 교수는 2010년에 전국적으로 입학정원 2천 명 규모의 4년제 대학 7곳과 전문대학 12곳 등 19개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한 데 이어, 2020년 4년제 대학 33곳과 전문대학 56곳 등 89개교가 폐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폐교 예상 대학의 상당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안고 있는 광주·전남 대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들의 미달사태는 재정 위기를 불러와 정상적인 대학운영은 물론 생존조차도 불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대학, 기업·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은 20곳, 전문대학은 17곳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고온 지속 식중독 ‘비상’

광주·전남 단체 급식 학교·기관 대책 부심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집단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 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와 관계기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의심 포함) 사례는 12건으로 환자 수는 296명. 지난해 같은 기간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 9일 여수 한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105명 가운데 19명이 살모넬라 C군, 3명이 노로 바이러스, 2명은 살모넬라 C군과 노로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 2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 초·중·고교는 최근 초여름 날씨에 계속되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 매일 2~3명의 학부모가 급식 재료 검수에 나서고 있다. 광주여고는 매일 오전 학생들이 ‘손을 깨끗이 씻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 동아여고는 21일 1교시 특화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20분 분량의 식중독 예방 비디오를 보여줬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집단급식소(605곳) ▲도시락 제조업(34곳)·대형 음식점(383곳)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식품수거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광주지역의 ‘식중독 지수’는 ‘우려’(28) 단계였다. ‘식중독 지수’는 음식물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의 증식과 관련한 온도 조건을 기준으로 ▲우려(10~34)=음식물 취급 주의 ▲주의(35~50)=6시간 이내 섭취 ▲경고(51~85)=4시간 이내 섭취 ▲위험(86 이상)=조리 즉시 섭취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식중독 집단 감염 주의보’를 내리고, 급식재료 보관기준을 기존 ‘5도 72시간’에서 ‘영하 18도 7일’로 대폭 강화토록 지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침안개 조심

대체로 맑겠다.

5월 22일

(음 4월 6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14~28℃
포항	구름조금	14~24℃
여수	구름조금	15~23℃
수원	구름조금	14~25℃
대구	구름조금	12~29℃
부산	구름조금	12~28℃
서울	구름조금	12~26℃
인천	구름조금	12~26℃
대전	구름조금	11~25℃
전주	구름조금	12~28℃
충주	구름조금	12~24℃
청주	구름조금	12~27℃
영주	구름조금	13~28℃
강릉	구름조금	11~29℃
울릉도·독도	구름조금	12~28℃

서해남부

알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면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알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면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6:22

여수 밀물 < 00:52

해점 05:24

해점 19:34

달점 10:26

달점 00:12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날씨						
최저/최고	15/26	17/23	17/26	15/28	16/27	15/27

사우나 탈의실 도난 ‘주의’

광주·전남 절도 잇따라

사우나와 찜질방 등에서 최근 절도범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은 21일 광산구 월계동 C 찜질방 등 18곳에서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18·고교 중퇴)군 등 8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화순경찰도 이날 화순을 B 사우나에서 미리 복제한 탈의실 열쇠를 이용해 조모(52)씨의 옷장에서 55만원 현금 손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사우나·찜질방 내 절도 사건은 9건으로, 검거된 피의자만도

19명.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탈의실 물품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금품을 훔쳤다. 일부는 자신이 사용했던 탈의실 열쇠를 미리 복사하거나,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중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CCTV가 철거된 이후 절도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도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업주와 손님 간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사들, 학교폭력 심각성 못느낀다

보통수준 인식...학생·학부모들과 괴리 커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호·박길정·정미경 연구원이 최근 열린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및 교사 스트레스 연구’ 논문

에 따르면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지각수준은 5점 척도에 평균 2.18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거나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으로 학교 밖에서 느끼는 심각성 수준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 수준, 또 학교폭력 당

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체감도와 교사들의 체감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실시된 이 조사에는 전국 165개 초·중·고교 학생(생활)부장 교사 165명, 일반교사 1천677명 등 모두 1천84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 지수 조사에서는 100점 기준에 평균 54.53점으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교직경력에 짧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서 열리고 있는 ‘오월 봄 마중 사진전’.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자가 마구잡이로 찢고 훼손, 전시가 일시 중단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음주 30대, 5·18 사진 훼손

42점 찢겨져 전시회 일시 중단

광주 동부경찰은 21일 5·18 민중항쟁 기념 사진 전시회 작품을 훼손한 김모(38·서울시 구로구 개포동)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2층에서 ‘광주 민예총’(회장 허달

웅)이 주최한 ‘오월 봄 마중 사진전-봄은 아직 내 마음에 오지 않았네’ 전시실에 들어가 사진 작품 42점을 찢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술을 마신 채 “죽은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며 소란을 피운 뒤 벽에 걸려

있던 사진을 찢은 것으로 드러났다.

5·18 민중항쟁 27주년을 맞아 17~27일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광주항쟁을 취재했던 사진가자들의 작품 23점과 민예총 사진분과위원회 회원 9명의 작품 등 100여 점이 전시 중이다.

‘광주 민예총’ 측은 “찢어진 작품을 복원에 22일부터 다시 전시할 계획”이라며 “복원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작품으로 대체해 전시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 문화전문대 교수

성희롱 인정 직위해제

전남대는 “문화전문대학원 A교수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직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성된 조사 소위원회는 앞서 A교수에 대해 제기된 성희롱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 진상조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전남대는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성희롱 외 프로젝트 연구비의 부당 사용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린 뒤 조만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교수의 학생 성희롱 의혹은 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해당 학생이 지난 3월 말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A교수가 상습적으로 스킨십과 성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면학부위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제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6월 1일 첫진도 개강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웰빙시대의 뉴-리더

국가기정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전국 유일의 실 강의

개강 6월 2일(토)

(토, 일 주말반)

- 공무원 가산점 3%, 농협중앙회 5%, 지역농협 10%
- 관련업체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
- 취업처: 농협,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업체 등

-1,2,3회 합격자 90% 이상 취업-

A+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옆)

062) 236-2467

좋은 기회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7.9 공무원 대비

속보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채용인원: 000명(약50명) 이상 필듯, 합격에 철호의 기회◎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출원, 응시율 9.1 경쟁이었다 ※

개강

6월 1일 주야(주말)반 모집

(현제 상담 접수중)

시험문제풀이 1개월 완성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에있다!

www.hanbitgosi.co.kr

7.9 공무원

올해부터 5년간 5만명증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제풀이 (1개월 완성)

합격률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6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홀/씩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